

다향오리, '오리스테이크 숯불갈비맛' 출시



'오리스테이크 숯불갈비맛'은 다향오리가 오리고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신설한 '다향 식품연구소'에서 선보인 첫 번째 신제품이다.

이 제품은 다향오리가 엄선한 국내산 오리의 통정육을 사용하여 촉촉한 육즙과 두툼한 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살렸으며, 오븐에 구워내 기름기를 줄였다. 또한 오리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숯불갈비맛 양념을 가미해 많은 이들이 보다 친숙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신제품은 싱글족 트렌드를 반영하고, 제품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0g 소용량으로 구성했다. 1팩 당 100g씩 개별 포장된 제품 4개가 들어있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향오리 오리스테이크 숯불갈비맛은 이마트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보이며, 다향오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다향착한정육점(dahyang.co.kr)을 비롯해 각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등으로 점차 확대해 판매할 예정이다. 제품 가격은 9,800원(100gx4개)이다.

쿠키뉴스 [2015. 12. 17]

(주)다솔, 2015 일자리 창출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다향오리의 관계사 (주)다솔(대표 박채연)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2015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단체(기업, 대학, 취업지원기관 등) 및 개인(사업주, 근로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행사다. 올해는 특히 청년고용 문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임금 체계 개편,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기여한 공로를 중점에 두고 평가했다.

(주)다솔은 지난 2012년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50억 투자로 도축 및 가공공장을 신설해 3년 만에 500% 가까운 재직자를 고용했다. 현시점에도 15% 이상 추가 채용을 계획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인턴제, 시니어 인턴십, 새터민 고용 등 계층을 넘나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별 및 나이에 차별 없는 임금 급여 규정, 노동 지수에 따른 능력별 차등 지급제 등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하며 남다른 행보를 이어온 점도 주목을 받았다.

박채연 다솔 대표이사는 “그동안 인턴, 신규채용 증대뿐만 아니라 새터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과도 함께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행보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더 나아가 훌륭한 임직원들과의 든든한 팀워크로 건강하고 다양한 제품을 국민들께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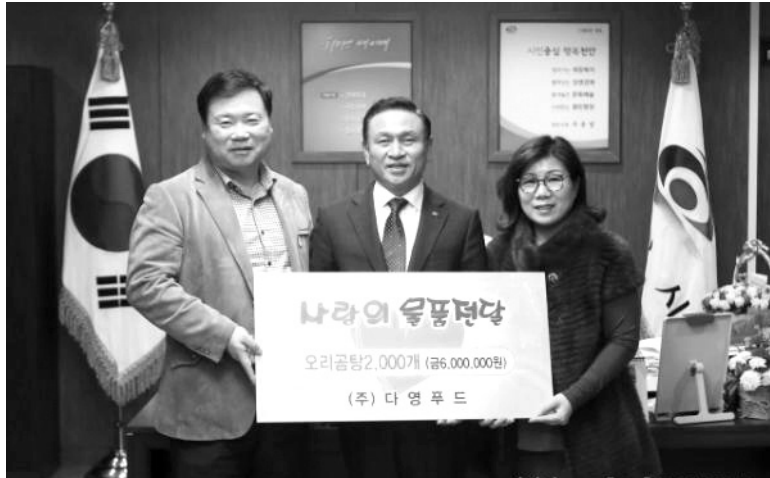
이세종 삼호유황오리 대표, 유황오리 3,000마리 기부



(주)삼호유황오리가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로 유황오리 3,000마리를 기부했다. 12월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고부면 농공단지에는 (주)삼호유황오리에서 장애인 단체와 생활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 관내 어려운 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정읍시와 푸드뱅크를 통해 유황오리를 기부했다. (주)삼호유황오리는 매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유황오리 등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세종 (주)삼호유황오리대표(사진)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오리고기를 먹고 힘을 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한 힘이나마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박기섭 기자 [2015. 12. 22]

(주)다영푸드, 오리곰탕 2,000개 기탁



충남 천안시 입장면 소재 (주)다영푸드(대표 김재식)는 12월 15일 어려운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오리곰탕 2,000개(600만원 상당)를 천안시에 기탁했다.

(주)다영푸드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쳐 온 오리고기 가공업체로 2014년에도 400여만 원 상당의 오리훈제를 기부한 바 있다.

충청일보 박상수 기자 [2015. 12. 15]